



보도시점 2024. 10. 2.(수) 배포 즉시 배포 2024. 10. 2.(수)

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긴급 상황 점검

- 제6차 수출비상대책회의 개최, 수출·해외생산 등 영향 제한적
- 애로 접수센터 운영, 대체 물류선 발굴, 피해기업 유동성 등 지원 대책 추진

산업통상자원부는 10.1일(미 현지시간)부터 시작된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영향으로 북미지역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긴급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일시/장소 : 10.2일 14시/무보, 참석자: 산업부 무역투자실장(주재), 무협·코트라·무보 담당 본부장, 코트라 뉴욕 무역관(영상연결), 자동차과, 배터리전기전자과 등

회의 점검 결과, 현재까지 북미지역 수출 물품의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파업으로 인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아울러, 배터리, 자동차 등 북미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공장 건립 및 생산 활동도 충분한 재고여력 등을 바탕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었다. 특히, 미 동부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 등은 금번 파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간 동부지역 향 일부 수출물품의 조기 선적, 항로 전환(동부 → 서안지역)을 추진해 왔다.

정부는 금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비상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. 우선, 정부는 ①미 서부, 멕시코 등 대체 기항지 소재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및 현지 대체 물류사 연결, ②필요시 미서부 노선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대, ③대금결제 지연 등에 따른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.

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“금번 미동부 항만노조 파업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우리 수출이 최근 9월 기준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향해 순항중인 만큼 금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 애로해소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	책임자	과 장(代)	정승혜	(044-203-4030)
	무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홍경태	(044-203-4022)

1 개최 목적

- ☐ 미동부 항만노조가 10.1일부터 파업*을 함에 따라 현지동향 파악,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애로사항, 대응방안 등 논의

* 국제항만노동자협회(ILA)가 사측인 미국해양협회(USMX)와 통상 6년마다 갱신하는 기존 노사 계약 만료인 9/30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0.1일부터 파업 (미국 동남부 주요 14개 항구 대상, 노조원 약 2만 5천여명)

2 회의 개요

- ☐ 일시/장소 : 10.2일(수) 14:00~ /무역보험공사(3층 국제회의실)

- ☐ 참석자

- (정부) 산업부 무역투자실장(주재), 자동차과 · 배터리전기전자과
- (유관기관) 코트라 · 무역협회 · 무역보험공사

* 현지 코트라 뉴욕무역관(영상연결)

- ☐ 세부일정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4:00~14:03	3'	○ 모두 발언	무역투자실장
14:03~14:13	10'	○ 자동차.배터리 분야 영향 및 대책	자동차과 배터리전기전자과
14:13~14:58	45'	○ 현지 상황 공유	코트라 뉴욕무역관
		○ (코트라) 현지동향 및 대응방안	참석자
		○ (무역협회) 수출입물류 현황 및 전망 ○ (무보) 무역보험 특별지원 확대안	
14:58~15:00	2'	○ 마무리 발언	무역투자실장